

# 슛 오프 10점에 환호 “안산, 박지성처럼 유명해졌네요”

‘2020 도쿄 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개인전 결승 응원 현장

가족·스승 등 최소 인원... 슛오프 앞두고 체육관 긴장감 ‘줌’ 활용 250여 교직원·학생들 언택트 응원전 펼치기도

안산(20·광주여대)이 쏜 화살이 10점을 기록하자 엄마 구명순씨가 두 손을 번쩍 들었다. 이윽고 상대 선수가 쏜 화살이 8점에 그치자 꾸씨는 남편 안경우씨와 양손을 맞잡고 열싸안았다. 한국 선수 최초로 하계 올림픽 단일 대회 3관왕을 달성하는 순간이었다. 부부의 눈에서는 환희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엄씨는 “여보 고생했어요. 이렇게 좋은 날 왜 울어요”라며 울먹였다.

지난 30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 양궁 국가대표 안산의 응원전에 열렸다. 이날 응원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안산의 가족과 학교 관계자, 스승, 동료선수 등 일부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후 4시 50분께 한국의 안산과 러시아의 옐레나 오시포바의 양궁 여자 개인 금메달 결정전이 시작되자,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일시에 대형스크린으로 쏠렸다.

체육관은 안산이 10점을 쏠 때마다 ‘텐텐텐’이라는 환호와 함께 터져나오는 박수로 들쭉거렸다. 결승경기답게 두 선수는 얼지락 뒤치락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다.

결국 세트 스코어는 5대 5 동률을 이뤘고, 두 선수 한 발의 화살로 금메달을 결정 짓는 ‘슛 오프’에 들어갔다.

운명의 한발. 한 점이라도 높거나 중심에 조금이라도 가까우면 승리하는 슛 오프를 앞두고, 체육관 안은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빠 안경우씨도 긴장이 됐는지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몸을 일으켰다.

안산이 쏜 화살이 10점을 기록하고 오시포바의 화살이 8점에 그친 순간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안은 떠나갈 듯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안씨 부부는 이선재 광주여대 총장, 코치들과 연이어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엄마 구명순씨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산이에게 너무나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너무나 기쁘다”며 “산이가 3관왕을 할 줄 알았다. 우리 딸은 뭐든 잘한다. 당연히 해내 줄 알았다”며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산이가 처음 국가대표가 되고 언론 인터뷰에서 ‘박지성 김연아처럼 유명해지고 싶다’고 했는데, 그 소원을 이룬 것 같다. 응원해준 모든 국민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라며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다. 억지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영화만큼이나 드라마틱한 경기였다. 내 딸이지만 너무나 멋있다. 산아 고생했고 사랑한다. ‘짹’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날 응원을 함께한 안산의 중·고등학교 코치들도 안산에 대한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30일 오후 안산의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을 기원하는 응원 행사가 열린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안산의 어머니 구명순 씨와 아버지 안경우 씨가 금메달이 확정되자 양팔을 차켜들며 기뻐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체육중학교 시절 코치였던 박현수씨는 “산이를 만나면 바로 안아주고 싶다. 산이는 메달을 딸 수 있을 때 따 내는 선수”라며 “지도자로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선수”라고 칭찬했다. 광주체고 시절 코치였던 이선미씨는 “산이의 지도자라는 게 행운이고 행복이다”라며 감정이 북받쳐 오를 듯 울

먹었다. 이날 경기를 함께 지켜본 광주여대 양궁부 동기인 최예진(21)은 “산이가 부담감이 컸을텐데 끝까지 결국 금메달을 따냈다”며 “슛오프 때 믿고 있었지만 너무나 떨렸다. 산이가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줌(zoom)’을 활용해 250여 명의 교직원과 학생들도 응원전에 참여했다. 이들 ‘언택트’ 응원단은 3시간여 동안 각자 안산을 응원하는 문구를 모니터에 적어보이거나 응원봉을 흔들며 금메달을 간절히 기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불볕더위 식힐 반가운 비

광주·전남 오늘 최대 80mm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일 광주와 전남지역에 비가 예고됐다.

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와 화순 등 전남 7개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고, 무안 등 15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 9일부터 폭염주의보와 경보를 오가며 24일째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일까지 최대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

인다.

기상청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은 1일부터 2일 밤까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2일 자정부터 아침(오전 9시)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고 봤다.

2일까지 예상강수량은 30~80mm이며, 기상청은 오는 3일에는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낮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광주·전남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매우 우수’

교육학술정보원 평가

전남대학교와 동강대가 컨소시엄을 이뤄 운영하는 ‘광주·전남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평가에서 ‘매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1일 전남대에 따르면 광주·전남권역 대학원격

교육지원센터(센터장 차성현 전남대 교수)가 전국 10개 권역 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평가에서 ‘매우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올해 가장 많은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광주·전남권역 센터에 대해 ‘참여 대학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콘텐츠 개발이 이뤄지는 등 사업 추진 목적에 대한 이해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했다.

광주·전남 권역에서는 전체 36개 대학 가운데 25개 대학이 광주·전남권역 대학원격교육협회의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사업 개요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공동활용 콘텐츠 개발 ▲원격교육 혁신 지원 ▲예산 집행 관리 등 모두 5개 부문에 대해 1차년도 사업 결과에 대한 서면평가와 화상평가로 이뤄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하는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운영된다. /최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남도장터 특별재난지역 농축수산물전 15일까지

전남도는 온라인 농축수산물 종합쇼핑몰 남도장터를 통해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지자체의 농어가를 돕기 위해 농축수산물 온라인 판로 지원에 나섰다.

남도장터(jnmall.kr)는 온라인 특별전을 기획해 오는 8월 15일까지 호우 피해로 어려운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진도군의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지산면 소재 농어업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판매 품목은 장흥 한우·표고버섯, 강진 복은자·된장, 해남 고구마·감치, 진도 감·미역·전복 등이다. 총 175개 업체 1050개 제품을 최대 10% 할인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도 제품 판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북구 ‘주민자치 학습마을’ 추진...주민자치회 전환 준비

광주시 북구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 학습마을’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사업은 주민들의 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자치회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심의, 행정 자문 역할을 비롯해 마을 의제 발굴 및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마을의제 실현 등 마을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직접

하는 주민 참여 제도이다.

이에 북구는 이달 중 주민자치회로 아직 전환되지 않은 7개 동을 학습마을로 선정해 다양한 자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습마을로 선정된 동은 오는 11월까지 마을별 현안 공우 워크숍, 마을자원 조사, 마을의제 발굴 및 실현가능한 의제 실천방안 도출 등의 선행학습을 한다.

북구는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전환과 지속가능

한 자치마을로 성장을 돕기 위해 주민자치 학습마을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 참여가 기반인 이번 주민자치 학습마을은 자치 역량을 높이는 배움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28개 모든 마을과 적극 협력하며 끊임없는 소통·혁신을 이어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무무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온누리상품권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공과금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저당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기(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들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